

익명 저널리즘, 걸리면 다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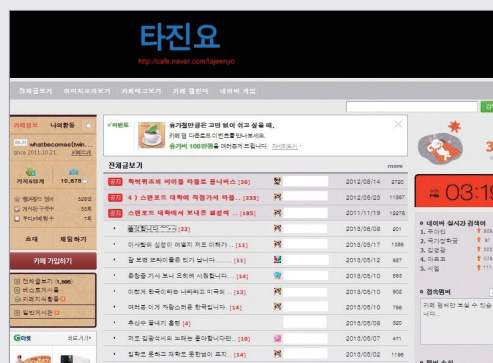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몇 년 전엔 '미네르바 사건'과 '타진요' 때문에 시끄러웠다. 미네르바는 한 때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통했던 익명의 경제논객이었다. 그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민감한 경제현안을 예언하고,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뿐 아니었다. 당시 그의 예언 한마디에 증권시장이 움직였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추적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는 무죄. 하지만 그가 30대의 전문대 출신 무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망한 네티즌들 사이엔 '조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음모론이 불붙기도 했다.

정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저널리즘은 과거엔 매체와 필자가 분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장 이후엔 필자가 모호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선동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명 '익명 저널리즘'이라 할 만한 현상이다.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정보와 날조된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시장을 혼란시키는 위험한 상황도 생겼다. 바로 이런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미네르바 사건 말고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건이 있었다.

타진요는 거짓과 모함으로 점철된 여론몰이로, 시쳇말로 하자면 '익명 저널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스탠포드대 출신이라는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한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한 데서 시작해 회원만 10만여 명으로 불려나가며 각종 음모론과 모함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문제 제기자의 신원도 감추고, 회원들 간에도 주로 익명으로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타블로라는 한 개인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언론 매체들까지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타블로가 이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음모론은 이런 객관적 사실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거세게 저항했다. 거짓에 마음을 뺏긴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성과가 있었다면, 인터넷 마녀사냥의 폐해를 공론화하는 데 가장 큰 케이스를 제공했다는 정도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타진요 카페

이는 대중 스스로 소통의 통로이자 주체가 되는 '소통 혁명'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요즘 대중들은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신(新)매체를 통해 만인과 직접 소통한다. 유사 이래 전대미문의 시대다. 하지만 신(新)기술과 신(新)문명이 반드시 문화와 지적 수준의 발달을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줬다. 이들 신(新)매체는 익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익명 저널리즘'의 온상이

로 미네르바나 타진요 사건 등을 통해 이미 그 폐해와 혼란을 드러냈지만 이에 따른 학습효과는 다른 쪽에서 길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익명 저널리즘은 단순한 허위와 날조, 음모론은 아니다. 저널리즘의 기초인 사실(Fact)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걸러지는 장치 없이 단편적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데서 오는 파괴력은 허위사실 유포나 음모론보다 치명적이다.

한 예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 한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에 탄 포스코 상무가 라면 때문에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쳤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사건은 승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또 승무원의 경위서까지 유출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SNS·인터넷에서 즉각적인 네티즌의 심판이 이어졌고, 해당 상무와 그가 재직했던 포스코에까지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다. 물론 그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가 치른 대가는 상상외로 컸다. 해당 상무는 회사에서 나갔고, 포스코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남양유업의 막달 영업직원 사건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는 3년 전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밀어내기하면서 전화를 통해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SNS를 통해 공개된 사건이다. 해당직원이 회사를 나간 것은 물론이고, 이후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출 감소와 사회 비난 등의 위기에 섰고, 다른 대리점들도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등 타인의 피해도 만만찮게 늘고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SNS로 유포된 후 대중의 응징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존 매체들이 뒤따라 보도하고 함께 확산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전 아무도 그들을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우리 사회

의 해묵은 문제인 '갑(甲) 횡포'에 대한 반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면서 '갑을문화'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였다. 한데 폭풍처럼 불어온 문제제기에 모두가 허둥대는 게 사실이다. 다른 갑을관계가 폭로되고, 모든 대기업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된다. 이는 이성적 대화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갑은 나쁘다'는 식의 흑백론과 여론몰이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갑의 횡포를 제재하겠다는 각종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과잉입법 논란도 벌어진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과정을 통한 문제제기나 해결과정이 무질서하고 포퓰리즘적이라는 거다. 언론활동은 늘 대상이 있으므로 상대의 명예훼손과 인권문제에 대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데 SNS 등을 통한 익명 저널리즘은 한 마디로 '걸리면 다 죽는다'는 시쳇말처럼 피해가 막심하다.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오보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익명 저널리즘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제받을 길이 모호하다. 이에 걸린 개인은 일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질 우려가 크다. 이전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익명의 '선동'에 대해선 경계하고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다.

한편 포스코에나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해당리사들 대표하여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원래 별명, 해설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포스코 역시 매우 양호스러운 입장입니다.

이해 포스코는 포스코에나리에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받고, 포스코에나리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업인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일과에 차질 없음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전포스코에나리사들 대표를 포스코에나리의 불명박사를 위해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포스코에나리 공식 입장 9월]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에나리입니다.

먼저 당사와 관련해 상해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잘못된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 감사 담당부서에서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받으신 것 같이 사죄드립니다.

포스코에나리 지휘